

**일** 6월 6일

51편 본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지은 참회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번제의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를 원하신다고 고백하나요?

52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때, 다윗은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은 그에게 도움을 주었고, 에돔 사람 도역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밀고하자 아히멜렉의 가문이 몰살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분히 여기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날카롭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포악하고 간사한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 )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 )하던 자라.”

53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곧 악인이며, 그들의 종국은 영원한 형벌일 뿐임을 경고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54편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들로부터의 구원과 악인들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 호소한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무엇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나요?

55편 본시는 압살롬의 반역시에 친구였던 아히도벨의 배반을 보고 다윗이 비탄에 잠겨 쓴 시입니다. 다윗은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어디에 날아가서 쉬고 싶다고 말하나요? (우리도 가끔씩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22절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화** 6월 7일

56편 본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평소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던 블레셋으로 망명한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수의 나라에서 생명을 부지해야 하는 다윗의 슬픔, 사면초가에 처한 것과 같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도움을 간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라고 몇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나요?

57편 본시는 블레셋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미친 자로 가장하여 그곳을 탈출한 후 아둘람 동굴이나 엔게디 동굴에서 숨어 지내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기까지 어디에서 피하겠다고 고백하나요? (힌트 1절)

58편 본시에서 시인은 재판 과정에서 정의를 굽게 하고 악을 자행하는 통치자들을 최고의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 ),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 ).”

59편 본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승장구하자 사울이 자객을 보내어 죽이려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나의 ( )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 )시며, 나를 ( )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 6월 8일

60편 본시는 이스라엘이 에돔으로 추축되는 이웃 국가의 강력한 공격을 받은 후, 왕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한 민족적 기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하여 무엇을 던지신다고 하시나요?

61편 본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을 갔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호소하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약해질 때 무엇을 하였나요?

62편 본시에서 다윗은 자신을 왕위에서 축출하려는 반역자들의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동요치 않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3편 대적들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다 광야로 쫓겨난 왕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현재 광야(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지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어디에 있다고 고백하나요?

64편 본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날에 악인이 멸망당할 것을 노래한 전반부와 그날에 의인이 기쁜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을 노래한 후반부로 나뉩니다. 악인들이 짓는 죄는 무엇인가요? (힌트 3절, 8절)

